

도담이에게 배운 교훈, 도전

(『나도 상 좀 받자』를 읽고)

황서빈

나는 『나도 상 좀 받자』라는 책을 읽었다. 처음에 이 책의 표지에 나온 여러 가지 상과 상장, 그리고 상을 받고 싶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다.

왠지 누군가에게

“너 혼자만 상을 받니? 나도 좀 받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 책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상을 받고 싶은 ‘나도담’이라는 아이에 대한 책이다. 도담이는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를 별로 못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지 도담이의 친구들은 도담이가 상을 받겠다고 했을 때 비웃기만 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려는 도담이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 나라면 시작하기도 전에 비웃음을 당한다면 포기할 것 같은데, 도담이는 비웃음에도 포기느커녕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도담이는 수학 경시대회, 영어 스피치 대회, 독후감 대회 등에 모두 도전하지만 상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된다. 대회는 나갔지만 이렇게 계

속해서 실패만 한다면 너무 허탈하고 슬플 것 같다. 그런 도담이의 마음이 공감되었다.

3개의 대회에 나가고 망신만 당한 도담이는 친구 가온이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블록 카페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각을 하며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 가온이의 아빠는 도담이가 지은 블록 집을 홍보용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홍보 동영상의 블록 집이 유명해지면서 도담이는 갑작스럽게 세계적인 블록 회사에서 상을 받게 된다. 이 장면에서 나는 도담이가 상을 받는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다.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지만 도담이가 좋아하는 일로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니 정말 기뻐고 놀라웠다. 또 열심히 노력한 도담이를 칭찬해 주고 싶었다. 나는 이런 도담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꼭 공부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즐긴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다. 무엇이든 결과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떠올라서 도담이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 먼저, 상을 받는 것보다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상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는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